

#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의 국어학적 연구

이지영\*

**초록**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은 기해박해(1839-1840)와 병오박해(1846)의 순교자에 대한 시복재판 기록이며 이들에 대한 시성 절차를 위한 기초자료로 로마 교황청에 전달되었다. 이 시복재판은 가톨릭 교회의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1883년 3월 18일부터 1885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시복재판(회차2 ~ 회차86)에서는 뫼텔 신부가 위임판사를 맡았으며 1885년 9월 17일부터 1887년 4월 2일까지 진행된 시복재판(회차88 ~ 회차102)에서는 푸아넬 신부가 위임판사를 맡았다. 로베르 신부는 모든 시복재판에 대한 서기를 맡았다. 회차87(1885. 4. 26.), 회차103(1887. 4. 3.), 회차104(1899. 5. 19.), 회차105(1901. 5. 19.)는 위임판사 교체, 문서 인수인계 및 정리, 확인,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기해박해와 병오박해의 순교자 82인에 대한 총 42인의 증언자 진술은 총 100회(회차2~86, 회차88~102)에 걸쳐 기록되었다.

총 5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대부분 한글로 표기되었으나, 신부들의 서명과 선서 등에는 라틴어 표기가 있으며 일부 내용에서 한자 표기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기록한 날짜와 기록한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19세기 후반의 필사본이며 약간의 언해투, 즉 문어체가 반영되기는 하였어도 전반적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와 서술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이 자료의 언어 양상을 표기,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이 자료가 근대국어의 주요 언어 변화를 보여주는, 19세기 후반의 언어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자료는 국어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학계에서 이 자료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19세기 후반의 언어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시복재판, 필사본, 19세기 후반의 한국어, 역사언어학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제2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Imbert, 范世亨) 주교는 1838년 말부터 조선에서 일어난 천주교 박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던 중<sup>1</sup> 그 자신이 기해박해(1839-1840)로 체포될 것이 예상되자 정하상, 현경련 등에게 뒷일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기해박해로 순교하게 되면서 이 일은 현석문, 최영수에게 이어져 『기해일기』가 완성되었다.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 주교(Ferréol)는 『기해일기』에 병오박해(1846)의 순교자에 대한 행적을 추가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후 홍콩의 파리외방전교회 대표부로 보냈고 이것을 최양업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하여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냈다. 이 자료가 1847년 10월 로마 교황청 예부성에 접수되고 교황청은 시복건의 개시를 허락하는 시복조사 위임장을 1864년 12월 23일과 1866년 9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보냈으나 병인박해(1866-1873)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 후 1882년 5월 11일에서야 조선에서 교황청 수속이 시작되어 총 42명의 증인에게 기해박해와 병오박해의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받는 시복재판이 1883년 3월 18일부터 1887년 4월 2일까지 진행되었고 1901년 5월 19일에서야 시복재판 문서가 정리되었다. 제8대 조선대목구장 뮈텔(Mutel, 閔德孝) 주교는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에게 이 문서의 번역을 맡기고 드망즈(Demange, 安世華) 신부에게 모든 기록과 번역을 확인하게 한 후, 1905년 7월 26일 번역된 모든 서류를 로마로 보냈다.<sup>2</sup>

1 이 기록은 「1839년 조선 서울에서 일어난 박해에 관한 보고(Relation de la Persécution de Sehoul en Corée en 1839)」이며 1838년 12월 31일부터 1839년 8월 7일까지의 조선 천주교 박해에 대한 내용이다. 홍연주(2004), 「해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시복재판기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p. 6 참조.

2 시복재판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저 참조. 차기진(1997),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관계 자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 역주」, 『교회사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25-227; 홍연주(2004), pp. 5-6; 홍연주(2006), 「기해교난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p. 81;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하상출판사, pp. 12-15; 윤민구(2014),

본고의 연구 대상인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은 바로 이 시복재판의 기록이다.<sup>3</sup> 5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현재 절두산 순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교회사연구소 편(2004)으로 영인된 바 있다.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자료가 『기해일기』와 더불어 기해박해와 병오박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자료는 증언 회차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였기에 작성 시기가 명확하고 서기를 맡아 증언을 기록한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는 『성모성월』(聖母聖月, 1887)을 번역하는 등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또한 이 자료는 실제 증언을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기에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료에 비해 좀 더 생생한 당시의 언어 양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신부들이 『한불자전』의 편찬자와 같은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19세기 후반의 한국어-프랑스어 대역사전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는 19세기 후반의 언어 양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3위 순교자 시복시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교회사연구』 45, 한국교회사연구소, pp. 18-42.

3 이 자료는 권두서명이 없고 내용에 맞지 않는 표제명이 기록되어 있다(2.1. 참조). 이 때문에 『己亥·丙午 殉教者 시복 조사 수속록』,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시복재판기록』,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목격 증언록』,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등 논저에 따라 자료명이 다른데, 본고는 가장 최근 논저의 자료명을 따르기로 한다. 차기진(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편(2004), 홍연주(2006),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참조.

## 2. 자료의 형태와 구성

### 2.1. 자료의 형태와 특징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은 가로 20cm, 세로 32cm의 크기로, 행수와 자수는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한 면에 12행 내외, 한 행에 25자 내외로 쓰여 있다.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은 95장, 권2는 97장, 권3은 97장, 권4는 80장, 권5는 95장이다. 권두서명은 없다. 표제명은 권에 따라 다른데 권1-4는 '병인 순교자 목격 증인록'으로, 권5는 '병인년 순교자 목격 증인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해박해와 병오박해의 순교자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표제명은 내용과 맞지 않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필사본으로 보아야 하나 증인의 서약이나 심문의 마무리 등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반복되는 내용은 목판으로 새긴 부분도 있다. 목판에는 빈칸을 두어 각 회차의 개별 사항(예를 들면 증언일, 증인 이름 등)을 필사하였다. 몇몇 기록에서는 목판으로 새긴 일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정한 양식을 보인다. 1883년 5월 6일부터 12일까지 6회에 걸쳐 증언한 김 가타리나(1817년 서울 출생)의 기록에서 목판 부분의 양식을 예로 들면 (1)과 같은데, [그림 1-1]~[그림 4-2]에서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이 필사한 부분이다.

(1) 가. 증인의 첫 번째 심문 회차의 첫 2면: 시복재판의 회차 순서, 증언 일시와 장소, 위임판사와 서기의 이름, 증인 서약 등.

- [그림 1-1]의 필사 부분: '五'(회차 순서), '삼, 양수월 초축일 오시 말 계미 이월 二十九日, 늑'(증언 일시), '서울 한양골 본덕에'(증언 장소), '김 가타리나'(증인 이름)

- [그림 1-2]의 필사 부분: '아냐 증인이 답왈 압내다'(확인 질문과

답)<sup>4</sup>

나. 해당 회차 심문의 마무리 부분 1면: 다음 증언 일시, 증인 서약 및 수결(혹은 서명), 위임판사의 서명, 서기의 서약 및 서명 등.

- [그림 2]의 필사 부분: ‘뤼일노, 뤼일 오시에’(다음 증언 일시), ‘진실한 말이올세다 † 증인 김 가타리나 쓸 줄 모로논 이의 십즈’(증인 서약과 서명), ‘G. Mutel Judex Subdelegatus m. ap. Corea’(뫼텔 신부의 서명. “귀스타브 뫼텔, 부 위임판사, 조선의 교황 파견 선교사”), ‘이러하외다 서스 金保祿, 서명, 날인’(로베르 신부의 서약과 서명 및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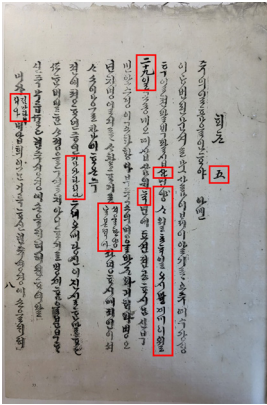
다. 동일 증인이 여러 차례 증언할 경우 두 번째 심문 회차의 첫 1면: 증언 일시와 장소, 증인의 이름 등.

- [그림 3]의 필사 부분: ‘六’(회차 순서), ‘삼, 양스월 초칠일 오시 계미三月 初一日, 녹’(증언 일시), ‘서울 한양골 덕에’(증언 장소), ‘김 가타리나’(증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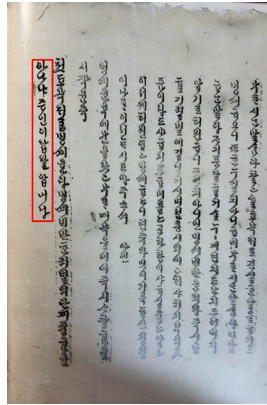
라. 해당 증인의 심문이 마무리되는 부분 2면: 증인 서약 및 수결(혹은 서명), 다음 증인의 이름, 다음 증언 일시 및 장소, 위임판사의 서명, 서기의 서약 및 서명 등.

- [그림 4-1]의 필사 부분: ‘진실한 말이올세다 † 증인 김 가타리나 쓸 줄 모로논 이의 십즈’(증인 서약과 서명), ‘니 이사벨’(다음 증인), ‘양오월 십일일 미시’(다음 증언 일시), ‘G. Mutel Judex Subdelegatus m. ap. Corea’(뫼텔 신부의 서명. “귀스타브 뫼텔, 부 위임판사, 조선의 교황 파견 선교사”)
- [그림 4-2]의 필사 부분: ‘이러하외다 서스 金保祿, 서명, 날인’(로베르 신부의 서약과 서명 및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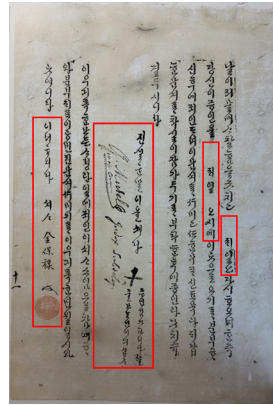
4 이후의 회차에서는 ‘아니나 증인이 답할’까지 목판에 새기는 것으로 수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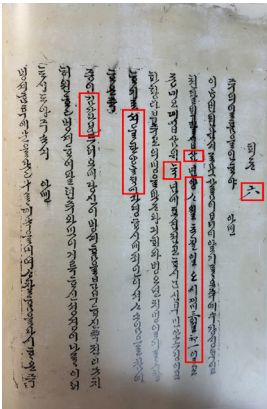
[그림 1-1] 1: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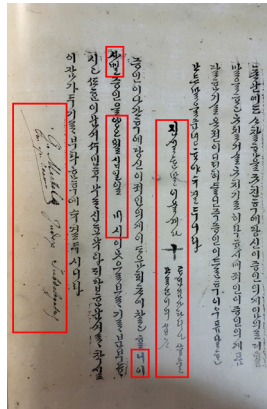
[그림 1-2] 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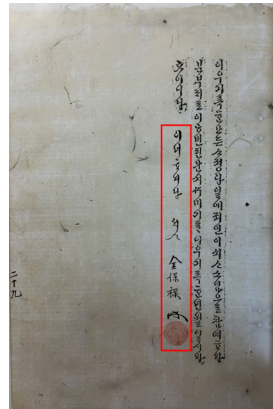
[그림 2] 1:11a



[그림 3] 1:11b



[그림 4-1] 1:2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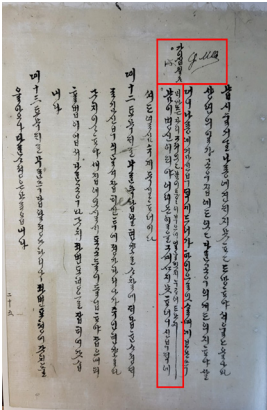
[그림 4-2] 1:29a

필사 오류가 있을 때는 본문에서 수정하고 상단에 수정 사항의 기록과 함께 위임판사와 서기가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만 수정하고 상단에 별다른 기록과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sup>5</sup> (2가)는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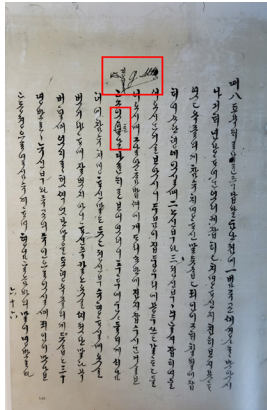
5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의 회차87은 위임판사 교체와 인수인계 문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위임판사가 뫼텔 신부에서 푸아넬(Poisnel, 朴道行) 신부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푸아넬 신부는 88회차 시복재판부터 위임판사로 참여하는데, 필사 오류를 수정한 후 상단에 별도의 기록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는 푸아넬 신부가 위임판사인 경우에

이' 좌측에 'ㅇ'로 표시하고 우측 여백에 추가 내용을 부기하였으며 상단에 '가(加) 이십칠 주'라고 썼다. (2나)는 '틀'에 원으로 표시하고 우측에 '튼'을 부기하였으며 상단에 '경(更) 일 주'라고 썼다. 두 예 모두 좌측에 로베르 신부가, 우측에 뫼텔 신부가 각각 서명하였다. (2다)는 오기인 '갓' 우측에 '가'로 부기하였으나 특별한 수정 표시나 상단 기록 및 서명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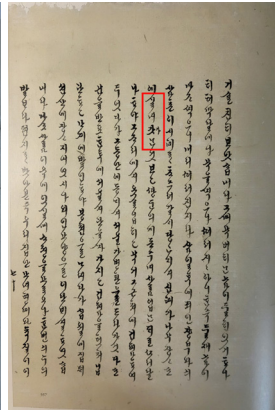
- (2) 가. 나중예 김 신부뉘에 드러가 하인으로 잇슬 쎄 보온즉 미 마즌 자리 그저 잇고 몸이 통〃 부으며 얼골빛치 누러러 도모지<sup>ㅇ</sup> 몸이 병신이 되야 (상단: '가 이십칠 주', 로베르 신부 서명[左], 뫼텔 신부 서명[右]) <1:25a>
- 나. 그 잇틀날 다른 디로 보내엿더니 (상단: '경 일 주', 로베르 신부 서명[左], 뫼텔 신부 서명[右]) <1:66a>
- 다. 신테가 나무장소 쇼에 실녀갓[가右]는 것 보고 <3:70a>



[그림 5] 1:25a



[그림 6] 1:66a



[그림 7] 3:70a

## 2.2. 자료의 구성과 내용

### 2.2.1. 증언 대상자

기해·병오박해 순교자에 대한 시복재판은 교황청에 제출된 시복건 의서에 포함된 83인에 연번을 붙여 증언 대상으로 삼았는데, 1번 앙베르(Imbert, 范世亨) 주교부터 74번 김성우(金星禹) 안토니오까지는 기해박해 순교자이고 75번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신부부터 83번 정철염(鄭鐵艷) 가타리나까지는 병오박해 순교자이다.<sup>6</sup> 다만 16번 경 마리아는 29번 박 큰아기[朴大阿只] 마리아와 동일인이었기에 실제 시복재판의 대상자는 82인이었다. 이 중 66번 한 안나와 67번 김 바르바라는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 증언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자료에는 모두 80인의 시복 대상자에 대한 증언이 기록된 셈이다.

### 2.2.2. 질문 조목

시복재판은 미리 정해 둔 조목에 따라 증인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는 조목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고 조목의 연번과 특정 조문에 대한 증인의 대답만 기록되어 있다. 증인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조목들은 크게 다섯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증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제2조목~제7조목) ② 시복 대상자의 신앙생활과 순교에 대한 질문(제8조목~제24조목) ③ 시복 대상자에 대한 공적 질문(제25조목~제48조목) ④ 시복 대상자가 남긴 기록물에 대한 질문(제1조목~제4조목) ⑤ 그 밖의 간단한 질문이다.<sup>7</sup>

이 자료에서 ③은 ‘공변된 데목’이라고 하였는데 ‘공변되다’는 『한불자

6 시복 대상자의 명단은 다음 논저 참조. 홍연주(2004), pp. 9-11;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pp. 20-33[1권], pp. 24-37[2권].

7 조목에 대한 추정엔 연구서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논저 참조. 홍연주(2004), pp. 7-8;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pp. 17-18[1권], pp. 19-20[2권].

전』에 등재되어 있다.<sup>8</sup> ④는 ‘촌문’이라고 하였는데 ‘촌문’은 『한불자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서 ‘촌문’과 관련한 문답은 정보가 더 없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3가) 드물게 자세히 대답한 경우도 있다(3나, 다). ‘촌문’을 ‘寸問, 짧은 질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sup>9</sup> (3나, 다)의 대답에 담긴 정보는 다른 조목에 대한 대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④의 질문 내용이 다른 조목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3) 가. 모든 무를 데목을 맞춘 후에 촌문에 니르매 증인이 이왕 무를 데목  
되담한 말 외에 다시 품달할 말이 업다 하니 <1:6b>

나. 모든 무를 데목을 맞춘 후에 촌문에 니르매 증인이 이왕 무를 데목  
되담한 말 외에 一百七十 촌문에 왈 니 베드루 | 포텡에서 형벌 받  
을 때 포장 베드루드려 왈 니 | 만일 압흐다 소리룰 하면 비쥬하는 줄  
노 알겠타 흐고 혹독히 치나 베드루 | 흐미흔 소리도 내지 아니흐엿  
단 말 드럿습내다 <2:82b>

다. 모든 무를 데목을 맞춘 후에 촌문에 니르매 증인이 이왕 무를 데목  
되담한 말 외에 二百五 촌문에 정 가타리나 외인 상던의게 잇실 새  
미 마즌 독으로 추절이 되면 몸을 쓰지 못허더라 하니 <3:42b>

### 2.2.3. 회차별 정보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는 회차2부터 회차105까지 모두 104회의 시복재판 기록이 있다.<sup>10</sup> 이 중 회차87은 시복재판 위임 판사의 교

8 『한불자전』의 다음 내용 참조.

공변되다 [公] Commun; général; public; universal; catholique. || Equitable; juste; impartial. 공변되지 안케 Injustement. <한불:198> [보통의; 일반적인; 공공의; 보편적인; 카톨릭의. || 공평하다; 올바르다; 편파성이 없다. ‘공변되지 않게’ 부당하게]

9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p. 81.

10 교황청 시성성에 보관된 『103위 시복 시성 자료』에는 회차1부터 회차121까지 있으며, 회

체와 인수인계 등의 내용이고 회차103은 시복재판 종결 및 문서 정리 등의 내용이며 회차104~105는 시복재판 문서의 확인과 필사 및 검사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자료에 실린 총 104회의 기록 중 증인의 증언을 기록한 부분은 100회인 셈이다.

이 자료의 회차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회차2-회차86](1883. 3. 18.-1885. 1. 27.)

- 위임판사: 뮈텔(Mutel, 閔德孝, '민 안스딩') 신부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 증인: 33인

- ① 장 로사: 1817년 서울 출생. 회차2-4(1883. 3. 18.-30.) ② 김 가타리나: 1821년 서울 출생. 회차5-10(1883. 4. 6.-12.) ③ 이 이사벨라: 1816년 서울 출생. 회차11-12(1883. 5. 11.-14.) ④ 황 마리아: 1821년 서울 출생. 회차13-17(1883. 5. 17.-22.) ⑤ 김 막달레나: 1811년 경기 고양 출생. 회차18(1883. 5. 26.) ⑥ 김 베네딕타: 1826년 출생. 출생지 미상. 회차19-21(1883. 5. 28.-30.) ⑦ 김 루치아: 1813년 서울 출생. 회차22-24(1883. 6. 2.-5.) ⑧ 이 글라라: 1814년 서울 출생. 회차25-26(1883. 6. 8.-9.) ⑨ 김 막달레나: 1825년 출생. 출생지 미상. 회차27-28(1883. 6. 11.-12.) ⑩ 백 안나: 1818년 서울 출생. 회차29-30(1883. 6. 13.-14.) ⑪ 엄 체칠리아: 1801년 출생. 출생지 미상. 회차31-32(1883. 6. 19.-21.) ⑫ 변 아나스타시아: 1811년 서울 출생. 회차33-36(1883. 6. 22.-26.) ⑬ 유 바르바라: 1824년 서울 출생. 회차37-43(1883. 7. 3.-11.) ⑭ 정 아가타: 1821년 서울 출생. 회차44-45(1883. 7. 16.-17.) ⑮ 장 막달레나: 1806년 서울 출생. 회차46(1883. 8. 30.) ⑯

차1은 교회 재판을 열게 된 그간의 경과나 증인 심문에 필요한 질문 형식과 절차, 증인 탐문 등에 대한 내용인 회차106 이하에는 증언 완료 후 그 내용을 확인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차기진(1997), pp. 229-230 참조.

이 루치아: 1805년 경기 양근 출생. 회차47(1883. 9. 5.) ⑰ 김 아가타: 1837년 서울 출생. 회차48-49(1883. 9. 6.-7.) ⑱ 함 막달레나: 1816년 서울 출생. 회차50-52(1883. 9. 18.-20.) ⑲ 유 바르바라: 1821년 개성 출생. 회차53-54(1883. 9. 21.-10. 1.) ⑳ 남 데레사: 1821년 서울 출생. 회차55-57(1884. 3. 6.-10.) ㉑ 한 바울라: 1819년 서울 출생. 회차58-59(1884. 3. 11.-12.) ㉒ 이 데레사: 1831년 서울 출생. 회차60-61(1884. 3. 15.-17.) ㉓ 김 도로테아: 1827년 경기 수원 출생. 회차62(1884. 3. 20.) ㉔ 서 수산나: 1852년 서울 출생. 회차63(1884. 3. 29.) ㉕ 선 막달레나: 1813년 경기 고양 출생. 회차64-65(1884. 4. 7.-8.) ㉖ 정 바르바라: 1825년 경남 언양 출생. 회차66(1884. 4. 9.) ㉗ 임 안나: 1836년 서울 출생. 회차67(1884. 4. 17.) ㉘ 임 루치아: 1829년 경기 수원 출생. 회차68(1884. 4. 21.) ㉙ 오 바실리오: 1812년 충남 천안 출생. 회차69-70(1884. 4. 23.-24.) ㉚ 김성서(金性西) 요아킴: 1808년 서울 출생. 회차71-72(1884. 4. 28.-30.) ㉛ 김 프란치스코: 1812년 경북 포항 출생. 회차73-82(1884. 5. 8.-26.) ㉜ 박성철(朴性哲) 베드로: 1827년 서울 출생. 회차83-84(1884. 7. 15.-16.) ㉝ 박순집(朴順集) 베드로: 1830년 서울 출생. 회차85-86(1885. 1. 26.-27.)

[회차87] (1885. 4. 26.)

- 위임판사 교체(뫼텔 신부 → 푸아넬 신부) 및 문서 인수인계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회차88 - 회차102] (1885. 9. 17.-1887. 4. 2.)

- 위임판사: 푸아넬(Poisnel, 朴道行, '막 빅토리노') 신부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 증인: 9인

- ① 임 베드로: 1818년 경기 시흥 출생. 회차88(1885. 9. 17.) ② 김 마리아:

1832년 서울 출생. 회차89(1885. 9. 18.) ③ 박 가이아나: 1819년 서울 출생. 회차90-91(1885. 9. 22.-23.) ④ 원 마리아: 1824년 경기 고양 출생. 회차92-93(1885. 9. 25.-26.) ⑤ 서 야고보: 1816년 서울 출생. 회차94-95(1885. 10. 6.-7.) ⑥ 이 베드로: 1814년 서울 출생. 회차96-97(1885. 10. 12.-13.) ⑦ 전 상궁: 1807년 서울 출생. 회차98(1886. 2. 14.) ⑧ 최 베드로: 1827년 서울 출생. 회차99-101(1886. 11. 2.-4.) ⑨ 이 마리아: 1828년 함경 출생. 회차102(1887. 4. 2.)

[회차103] (1887. 4. 3.)

- 시복재판 종결 및 문서 정리.
- 위임 판사: 푸아넬(Poisnel, 朴道行, '박 빅토리오') 신부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회차104] (1899. 5. 19.)

- 시복재판 문서의 확인.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최 뉴스') 신부에게 등본 임무 부여.
- 위임 판사: 푸아넬 신부(Poisnel, 朴道行, '박 빅토리오')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회차105] (1901. 5. 19.)

- 시복재판 문서의 확인. 드망즈(Demange, 安世華, '안 필노리아노') 신부에게 기록 검사 임무 부여.
- 위임 판사: 푸아넬(Poisnel, 朴道行, '박 빅토리오') 신부
- 서기: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

### 3. 국어학적 특징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은 19세기 후반의 한국어 양상을 보인다. 이 자료는 증언 내용을 실제 기록한 것으로서, 여러 정황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고 충실하다. 일부 문어체적 특성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료에 비교할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3장에서는 이 자료에 보이는 몇몇 특징을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3.1. 표기의 측면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은 대체로 순한글로 기록되었으나 드물게 날짜, 숫자 등 일부 내용이 한자로 표기되기도 하였다.<sup>11</sup> (5가)는 날짜를, (5나, 나')는 숫자를 한자로 표기한 예이다.<sup>12</sup> 이 외에도 정하상이 쓴 『상재상서』(上宰相書)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인용한 부분(5다), 정하상의 심문 장면에서도(5라) 한자 표기가 확인된다.

(5) 가. 乙酉 八月 初十日 <5:6a>, 陽六月 十五日 <2:32a>, 일천팔백십五年  
양九월 二十三일 <5:16b>

나. 十四월에 <1:10a>, 三十여 세러라 <1:13b>, 치도곤 三十도를  
<1:16a>, 一즈로 보롬ㅎ엿습고 <4:78b>

나'. 一 범 주교의 <1:66a>, 二 노 신부 <1:66a>, 三十 덩 반로 | <1:66a>

다. ㅎ나흔 상지상셔라 ㅎ는 중국 진서척이온되 … 그 척은 伏以孟氏之  
말노 시작ㅎ야 데 장 不願得罪於天主教에 긋치고 四즈로 보롬ㅎ엿

11 한글, 한자 표기 외에 신부들의 서명이나 전서 부분은 라틴어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12 (5나')에서 한자로 표기된 숫자는 증언 대상자의 연번이다.

습내다 <4:79b><sup>13</sup>

라. 범장으로 나갈 새 명피에 謀反不道라 쓰거늘 반로 말이 나는 역적이 아닌데 모반이라 ㅎ는잇가 관 왈 그 反은 그 叛과 다룬이라 ㅎ던 말을 드럿습고 <4:37a><sup>14</sup>

외국 인명 표기에서 모음 뒤 ‘ㄱ’을 선행 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처럼 표기하는 특이한 합자법이 보이는데, 이 당시의 가톨릭 관련 자료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표기 방식이다.<sup>15</sup>

(6) 니 베란싌 <4:6a> [이의창(李宜昌) 베난시오(Venantius)], 니 앞스딩 <1:78b> [이광헌(李光獻) 아우구스티노(Augustine)], 덩 브로 <1:9b> [정하상(丁夏祥) 바오로(Paul)], 마시랴 <3:89a> [오 바실리오(Basil)], 박 발도로 벤 <3:45a> [이 데레사의 남편인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 오 암브로싌 <3:89a> [오 바실리오의 부친인 암브로시오(Ambrose)], 한 난렌싌 <3:74b> [한이형(韓履亨) 라우렌시오(Lawrence)], 현 갠로 <1:17a> [현석문(玄錫文) 가롤로(Charles)]

경음 표기는 사계 병서로 되어 있다.

(7) [시] 쑤 <2:37b>, 싹엿다 <1:70a>

[ㅅ] 쌍을 <3:40a>, 싹러진 <4:37b>

[ㅅ] 쌍를 <4:70b>, 싹진 <5:17a>

13 ‘데 장’ 사이는 한 글자 정도 빈칸이 있고 한자 부분은 주석처럼 작은 글씨로 써 있다.

14 『일성록』 현종 5년(1839) 8월 15일 자 기사에는 정하상이 ‘謀叛不道’의 죄명으로 처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5 세례명의 영문 및 국문 이름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 참조([https://maria.catholic.or.kr/sa\\_ho/saint.asp](https://maria.catholic.or.kr/sa_ho/saint.asp)).

[ㄷ] 쌀을 <1:12b>

[ㄷ] 쪽우물골 <4:61a>, 씩으나 <3:70a>

어말 자음군 표기는 ‘ㄹ, ㅼ, ㅼ’의 예가 보이는데, 드물게 자음군단순화 된 예도 보인다.

(8) [ㄹ] 가들은 <1:20b>, 넓다가 <2:35a>, 넓혀 <1:28a>, 뵈고 <1:18a>, 뵈고 <2:39b>, 뵈는 <5:74b>, 뵈히고 <2:85b>

[ㅼ] 쑤는 <1:43a> cf. 웁기고 <1:45a>, 맛치 훈집에서 살긔치 ㅎ고 <4:36b>

[ㅼ] 뵈아 <3:65a>, 얹게 <3:24a>, 여뵈 <4:41a>

어중 ‘ㄹㄹ’ 연쇄는 ‘ㄹㄷ’ 표기가 우세하며 외국 인명 표기에서도 확인된다(9가, 가). 반면 ‘ㄹㄹ’ 표기는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9나).

(9) 가. 홀노 <1:2a>, 칼노 <5:33a>, 주물너 <2:29b>, 틀닌 <1:75a>, 돌니고 <1:73b>, 말니시고 <3:85a>, 놀나지 말나 <3:70b>, 알냐고 <2:15a>, 알니로다 <2:90b>

가. 니 글나라 <1:89a> [글라라(Clare)], 김 막달네나 <2:53a> [막달레나 (Magdalen)], 박 더글나오 <1:90a> [테클라/테클라(Thecla)], 바울나 <3:35a> [바울라(Paula)]

나. 불립으로 <1:4b>, 붓들렛시나 <1:40a>, 살립허더라 <5:56b>

### 3.2. 음운의 측면

ㄷ-구개음화는 고유어나 문법 형태에는 대체로 적용되나 한자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10가, 가). 매우 드물지만 고유어에 ㄷ-구개

음화가 적용되지 않거나 한자어에 ㄷ-구개음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보인다(11나, 나').

(10) 가. 지내고 <1:22a>, 써러지지 아니ㅎ매 <2:15b>, 직회기에 <3:16a>, 늦  
봄ㅅ지 <3:24a>, 싸흠 밧고랑고치 팠더니 <2:47a>, 보지 못ㅎ엿습내  
다 <2:61b>

가'. 디방에 <3:6b>, 도션말을 <3:94b>, 툰쥬학장이는 <5:25b>, 시테를  
<2:40a>

나. 더는 <2:45b>, 그렁더렁 사입내다 <5:80a>, 도훈 <2:27a>, 못뒸단  
<1:24b>.

나'. 정 신부 | <1:66a>, 전교ㅎ시는 <1:1a>, 도정에서 <5:82a>

두음법칙은 어두음 ‘ㄷ’을 회피하는 경우와 /i, j/ 앞의 경구개비음 ‘ㄴ’이 탈락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어두음 ‘ㄷ’의 회피는 (어두음이 ‘ㄷ’인 고유어가 거의 없는 까닭에) 한자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에서는 한자어의 어두음 ‘ㄷ’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지만(11가)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ㄴ’으로 바뀐 예도 드물게 보인다(11나). 어두음 ‘ㄷ’이 ‘ㄴ’으로 교체된 예는 외국어 인명에서도 보인다(11나').

(11) 가. 린왕ㅎ야 [來往] <3:14a>, 량식도 [糧食] <1:33a>, 령세ㅎ고 [領洗]  
<1:2a>, 류홀 [留] <1:49b>, 림ㅎ신 [臨] <1:50a>

나. 냥즈ㅎ을 [狼藉] <1:69b>, 냥반의 [兩班] <1:53a>, 노인이로디 [老人]  
<2:66a>, 누설치 [漏泄] <1:1b>, 뉴 신부 [劉方濟] <1:42b>, 늑십늑  
[六十六] <2:11a>, 닐방에서 [冷房] <4:3a>

나'. 장 노샤 [로사(Rose)] <1:1a>, 김 누시아 [루치아/루시아(Lucy)]  
<3:14b>, 한 노렌신 [라우렌시오(Lawrence)] <3:74b>

이 자료는 /i, j/ 앞의 경구개비음 ‘ㄴ’이 탈락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데(12가, 가) 탈락하는 경우도 드물게 확인된다(12나, 나’).

(12) 가. 너름에 <1:69b>, 넛 것 <3:51a>, 니야기로 <3:2b>, 니젓습내다 <3:3a>

가’. 냥반에 [兩班] <2:11a>, 녀교우 | [女交友] <3:38a>, 년월일시와 [年月日時] <1:11a>, 넌녀허야 [念慮] <1:36a>

나. 이야기를 <2:37b>, 잇젓습고<sup>16</sup> <2:39a>

나’. 양반의 [兩班] <1:33b>, 윤 신부 [劉方濟] <4:26a>

흥미로운 것은 경구개비음 ‘ㄴ’이 탈락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탈락하는 예들이 드물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자료에서 경구개비음 ‘ㄴ’의 탈락이 드물게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들은 단순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sup>17</sup> 그러나 이 자료에서 분명한 오기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들 예를 ‘ㄴ’의 탈락 사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채로 ‘ㄴ’ 탈락의 사례로 보았을 때의 설명만을 덧붙이기로 한다. 이들 예가 단순 오기의 사례라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3) 가. 도정 공노이 “살녀 두면 도선에 유익하고 죽이기는 앗깝다” 허더니 <5:70a>, 근절이 원허음이다 <3:27a>, 실정을 알야 허야 <1:10a>, 엇지된 수정을 알야고 가 보은즉 <1:45a>

나. 눈물을 흘엇더라 <3:47a>, 피를 흘이며 <5:73b>, 귀흔 물건이라 허며

16 ‘잇젓습고’는 ‘이젓습고’의 오기이다.

17 심사자 중 한 분은 (13가)의 ‘원허음이다’, (13라)의 ‘왕십이’의 예를 ‘ㄴ’ 탈락과 같은 음운 현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표기상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고 지적해 주셨다.

파내여 방에서 말이여 <4:15a>

다. 여기셔 이십 이나 되논디 <1:55b>

라. 기히 여러 히 전에 공덕이 새말서 잡힌 줄 알앗습고 <3:3b>, 공덕이  
흑석이 모통이에 가서 <1:55b>, 병신년에 왕심이서 잡히여 <4:11b>

(13가)는 문법 형태(혹은 결합형)에서 ‘ㄴ’이 탈락한 예들이다. ‘공노이’는 ‘공논’(公論)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공논이’로 표기되었어야 하는 예이다. ‘공논이’는 [공노니]로 발음되었을 텐데, 여기에서 ‘ㄴ’이 탈락하여 ‘공노이’로 표기되었다. ‘원흐옵이다’는 ‘원흐옵니다’에서 비음동화가 적용된 ‘원흐옵니다’에서, ‘알야, 알야고’는 ‘알랴(고)’의 어중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된 ‘알냐(고)’에서 ‘ㄴ’이 탈락한 것이다. (13나)는 어휘 내부에서 ‘ㄴ’이 탈락한 예들이다. ‘흘였더라, 흘이며’와 ‘말이여’는 ‘흘리-, 말리-’의 어중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된 ‘흘니-, 말니-’에서 ‘ㄴ’이 탈락한 예들이다. (13다)는 한자어 단위 명사인 ‘리’(里)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니’에서 ‘ㄴ’이 탈락한 예이다. (13라)는 ‘리’가 포함된 서울 지역 지명의 사례들인데, ‘공덕이’는 마포구 공덕동,<sup>18</sup> ‘흑석이’는 마포구 현석동, ‘왕심이’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의 지명이다. ‘공덕이, 흑석이’는 ‘리’(里)가 ‘니’로 바뀐 후 ‘ㄴ’ 탈락을 겪은 것이고, ‘왕심이’는 ‘리’가 ‘니’로 바뀐 ‘왕십니’에서 비음동화를 겪은 ‘왕십니’로 되었다가 ‘ㄴ’이 탈락한 것이다.

### 3.3. 문법의 측면

#### 3.3.1. 조사

##### 3.3.1.1.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선행 음운 환경에 따라 ‘이’와 ‘가’가 확인된다. 17세기 중

— [www.kci.go.kr](http://www.kci.go.kr)

18 ‘공덕리’로 표기된 예도 있다. (서울 공덕리로 이사하기는 <5:73a>)

반 출현한 주격조사 ‘가’가 /i, j/라는 음운 환경을 넘어서서 모음 전체로 확대되는 시기가 18세기 중반이므로 이 자료에서도 ‘가’는 모든 모음 뒤에 나타난다. 다만 이 자료에는 주격조사 ‘ㅣ’를 별도 음절로 표기한 사례들도 보인다(14다). 이처럼 주격조사 ‘ㅣ’를 별도 음절로 표기하던 관행은 /i, j/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면서 한자로 표기된 체언의 경우에 주로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선행 체언의 표기·음운 특성과 무관하게 ‘ㅣ’를 별도 음절로 표기하는 사례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전의 관행과는 차이가 있다. 19세기 후반에 이러한 표기는 주로 언해투, 즉 문어체적 특성을 보이는 자료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문체가 문어체적 특성을 일부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14) 가. 죄인이 궁에 그저 잇습고 <1:16a>, 포교들이 그 집문서를 보고 <1:68a>  
 나. 네가 베티후면 <1:72b>, 숨바지에 피가 못어 <3:16b>, 외방전교회 가 맞흐니라 <4:36a>, 쌌가 드러나고 <5:75a>  
 다. 판서ㅣ 물니치라 흐디 <1:14a>, 쟝로ㅣ 드러와 <3:36b>, 너ㅣ 만일 압흐다 소리를 흐면 <2:82b>

존칭의 주격조사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씩서’이고 그 외에 ‘씩오서, 계업서, 계서’도 확인된다. 이들 존칭의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대상은 가톨릭의 존칭 대상이거나 왕실 인물이다.<sup>19</sup>

- (15) 가. 쥬씩서 온전케 부활 식이시겟다 흐고 <3:69a>, 노 신부씩서 타국에 넘슈 공부로 보내샤 <5:68b>, 김 대비씩서 아모리 살니려 흐나

19 (15가)에서 ‘노 신부’는 모방(Maubant. 盧. 羅伯多祿), ‘김 대비, 대왕대비’는 순원왕후이고 (15나)의 ‘민 안스딩’은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이며 (15다)의 ‘대감’은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이다. (15라)의 ‘뉴 신부’는 유방제(劉方濟) 신부이다.

<2:29a>, 대왕대비씨서 주교 신부를 뵈시라 하시매 <5:42a>

나. 지금 대한 주교 민 안스딩씨오서 치명일기 스찰스를 급히 못차실  
 모습을 품으샤 <5:90a-90b>

다. 대감계옵서 … 스찰 소임을 박 신부의 부탁하야 분부하시매  
 <4:77a>

라. 뉴 신부계서 적은 집 하나홀 학드리골에 사서 <1:49a>

처격조사가 “단체”를 가리키는 체언과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한 사례들도 확인된다.

(16) 조정에서 올타 하고 <4:26b>, 나라희서 잡아 형벌하고 <3:50b>, 지금  
위서 주교를 뵈시라 하니 왔노라 <5:61a>

### 3.3.1.2.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 ‘의’는 현재 「표준어규정」 제5항에서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은 ‘의’의 현실발음을 고려한 것이지만 중세국어에서 처격조사 ‘애, 에, 예’와 관형격조사 ‘스’이 결합하여 관형격조사로 기능했던 ‘옛, 옛, 옛’의 변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6세기부터 이들 형태에 대한 문법 의식이 약화되면서 ‘스’이 결합하지 않은 ‘에, 예’ 등이 나타나서 관형격조사 ‘의’와 함께 쓰이게 되었다.<sup>20</sup>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의 (17)

20 중세국어의 ‘옛, 옛’에서 ‘스’이 결합하지 않은 ‘에, 예’가 관형격조사로 쓰인 예는 다음 예문 참조. 19세기 이후의 자료인 『광재물보』에서는 ‘胷眼’을 ‘눈의 치’ <광재물보 4:45a>라고 하였는데,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눈에 치’로 나타났던 예이다. 이 시기에 관형격조사로 쓰이는 ‘에’와 ‘의’의 혼용(혹은 혼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내 절다마리 누네 치 나셔(我的赤馬胷骨眼) <번박 상:42b>

(나) 野人乾은 소서리에 치샤 도후니라 <간벽:17b>

(다) 병과 항에 거슨 다 진하야(瓶罌之罄) <진자음음:2b>

(라) 버금 등에 거시로다 <몽노 8:2b>

은 관형격조사가 ‘에’로 나타나는 예들은 이중모음 ‘의’의 현실발음을 반영한 것이면서 관형격조사로 ‘의’ 외에 이전 시기의 형태에서 변화된 ‘에’가 함께 쓰였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7) 냥반에 집 유모로 잇새까지 의탁하야 지내오니 <2:11a>, 서소문 네거리에 송장 둘에 머리를 각각 띠단 거슬 친히 보고 <2:81a>, 박 아나는 태궁방에 안히라<sup>21</sup> <4:12a>, 보지 못하는 때라도 모든 범절에 말이며 마리아ㅣ 열심슈계흠이 진절하단 말과 <5:23b>, 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단에 조당으로 지내다가 <5:56a>

관형격조사와 결합한 체언이 의미상 주어로 해석되는, 소위 ‘주어적 속격’의 사례들도 확인된다. 관형격조사의 이 같은 용법은 19세기 후반에는 언해투, 즉 문어체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자료에 보이는 다음 예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격조사 ‘ㅣ’의 사례와 더불어 이 자료의 문체에 문어체적 특성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18) 쥬의 내신 물건이니 <1:74b>, 괴스년에 몬져 잡힌 교우의 지시흠을 당하야 <5:22a>, 외인들과 관장까지라도 다 아가다의 죽게 되는 거슬 원통이 녀여 <3:57a>

### 3.3.1.3. 여격조사

여격조사는 존칭 체언일 때 ‘씨’, 비존칭 체언일 때 ‘의게’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다만 존칭 여부에 따른 ‘씨’와 ‘의게’의 구분은 매우 엄격

21 ‘태궁방’은 태문항(太文行)을 말하는데, 그는 궁방(弓房)의 장인이었고 박 아기 안나의 남편이다. 서 수산나의 증언 참조. (박 아나는 본리 강교에 살던 사름이라 장부는 태문항이요 <3:59b>)

한 것은 아니어서 ‘씩’은 가톨릭의 존칭 대상일 때 쓰이지만(19가)<sup>22</sup> 동일 체언에 ‘씩’과 ‘의계’가 모두 쓰이거나(19가, 나) 가톨릭의 존칭 대상일 때도 ‘의계’를 쓴 예(19나)가 확인되기도 한다. 여격조사 ‘계’는 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이나 대명사의 관형형과 결합했을 때 주로 보인다(19다, 다’).<sup>23</sup> 다만 이러한 결합 조건이 엄격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끝나는 체언이 ‘의계’와 결합하거나(19라) ‘이’로 끝나지 않은 체언이 ‘계’와 결합한 경우(19라’)도 드물게 확인된다.

(19) 가. 성모의 날 드러잡쇼셔 귀구혀 달나 <3:47a>, 교화황씩 시로이 권을 주시는 문적을 밧으섯시매 <5:90b>, 범 슈요의 성수를 밧앗시나 <1:66a>, 민 신부 | 대감의 (...) 네 가지 문서 번역헌 거술 밧치고 <4:79b>, 정 신부의 령세헌 후에 <3:12a>, 김 신부의 교훈을 드러 <4:7b>

가’. 장부의 이왕 드른 말은 알닌즉 <3:69a>, 슈양모의 문교하고 <3:12a> 나. 오 발부라의계 드른즉 <1:20a>, 바로 형판의계 말흔즉 <2:40a>, 모친의계 못기룰 <2:89a>, 노모의계 효도로이 봉양하며 <2:12b>, 늘의계 의지하야 <2:26a>, 포교의계 잡히여 <1:21a>, 안희의계 편지로 권면대성하야 <2:94a>, 군스의계 가서 <3:16a>, 죄인의계도 업고 <1:37b>, 그 칙은 지금 교우의계 잇는 기히치명일기라 <4:22b>

나’. 죄인 슈양모의계 드럿습내다 <3:14b>, 장부의계 친히 드럿습내다 <3:17a>, 김 안더리아 탁덕의계 성수를 밧앗소나 <2:34b>

다. 유직이계 돈도 주며 <3:32a>, 맞치 호랑이계 물너간 모양을 하고 <3:4a>, 김 신부 손의 강아지계 물닌 보람이 잇다 하니 <5:8a>, 외인

22 (19가)에서 ‘범 슈요’는 앙베르(Imbert, 范世亨) 주교, ‘민 신부’는 뮈텔 신부(Mutel, 閔德孝), ‘대감’은 블랑(Blanc, 白圭三) 주교, ‘정 신부’는 샤스탕(Chastan, 鄭牙各伯) 신부, ‘김 신부’는 김대건 신부이다.

23 ‘뉘계’는 ‘누 | 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누 | 계 잇섯는지도 니젓습내다 <1:28a>)

김 칠복이게로 식집 가서 <3:59a>

다. 늬게 절후앗느냐 <2:68a>, 늬게 잇는지 모르고 <4:8b>, 베드루 | 내  
게 절후더니 <5:43a>, 김 누시아가 데게 잇는 수가락을 죄인의게  
주면서 말후디 <1:52a>

라. 유직이의게 인심을 엇어 <2:7a>, 형님 남편 님 베드루 성실이의게  
드른 말이오 <3:49b>, 시아자비의게 문교후야 <2:19a>, 시아즈비의  
게 친히 드렀습내다 <3:7b>, 큰며누리의게 비호라 <3:47a>

라'. 마노라게 드른즉 <1:4b>, 증조부게로 진권후야 기가후엇더니  
<3:46b>, 교우게로 와 의탁후다가 <4:17b>

여격조사 ‘드러’는 주로 발화동사 구문에 보이는데, 모음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 ‘더러’의 예도 드물게 확인된다(20가). 매우 드물지만 여격조사 ‘안테’도 확인되는데(20나), 이는 공명음 환경에서 ‘한테’의 ‘ㅎ’이 탈락한 것이다.<sup>24</sup>

24 『한불자전』에는 ‘안테’(혹은 ‘안치’)만 등재되어 있다(가). 19세기 후반의 다른 자료에는 대부분 ‘헌테, 헌티, 헌퇴’ 등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 ‘안테’의 예도 보인다. 다만 공명음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안테’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나, 나') 공명음 환경에서 ‘ㅎ’ 탈락을 겪은 ‘안테’가 그 외의 환경에서도 쓰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안테’는 20세기의 자료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서울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다, 라, 마). 서울 방언에서 모음 어간 뒤에서 조사 ‘허구, 한테’의 ‘ㅎ’이 탈락하는 사례는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도서출판 월인, p. 271 참조.

(가) 안테 ou 안치 Par, à, de. (Remplace le dadif.) <한불:7> [‘안테’ 혹은 ‘안 ’: ~에 의 해, ~에게, ~로. (여격을 대신함)]

(나) 아라사안테 북방을 췌기고 덕국안테 교슈만을 췌기고 영국안테 위해위를 밧치고 법국안테 남방 요히지디를 췌기논것이 만단 지당 후도다 <독립신문 1898. 6. 16. 외국통신>

(나') 서반아가 미국안테 펴흔 것이 신들이 잇도다 <독립신문 1898. 8. 13. 외국통신>

(다) 그런 말을 하라거든 어머니나 아버지안테 가서 하구료 <옛날 꿈:12 (나도향, 1922. 12.)>

(라) 자! 이것도 사세야 합니다. 그래야 기생안테 련애편지를 하시지요. <사건:18 (박영희, 1926. 1.)>

- (20) 가. 안히드려 말하디 <3:36a>, 포교드려 왈 <3:13b>, 포장드려 글오디 <1:74a>, 방지거드려 무르디 <5:75a>, 군사드려 흥는 말숨이 (...) 흥시키고 <5:70a>, 어머니드려 나가자 하며 <3:3b>, 아가다드려 예수 마리아를 불너다고 흥즉 <3:41a>, 회장 안스딩드려 아버지라 하며 <3:16a>, 죄인드려 이 문서 꾸미기를 분부흥시키고 또흥 무르시는 도목과 디답흥 문서를 착실이 잠가 두기를 부탁흥 후에 <1:3a>
- 가. 포장이 쥬교더러 엇지흥야 왔시며 뉘 집에 잇섯느냐 무른즉 <5:61b>, 즈식들더러도 여괴 잇서도 사지 못흥고 (...) 이 아니 치명이나 흥니 <5:74a>
- 나. 장 쥬교씩 밧앗던 벌을 빅 신부안테 사흥야 주심을 밧은 후에는 다시 그런 일 업습내다<5:60b>

### 3.3.1.4. 비교격조사

비교격조사로는 ‘에서, 처로, 보다’가 확인되는데, ‘보다’의 다른 형태인 ‘보담’도 확인된다(21나).<sup>25</sup>

- (21) 가. 죄인에서 십 년 우희며 <1:20a>, 수리산 치운이처로 흥여라 <5:50a-50b>, 지금보다 더욱 심흥야 <1:70a>, 날보다 슈계 잘흥던 <1:82a>
- 나. 이 말을 듯고 성몽인가 마몽인가 의심 잇서도 그 전보담 치명흥 원의 곤절흥더라 <5:63b><sup>26</sup>

(마) 온, 참, 십 환에다 파느니 바루 길 가는 사람안테 거저 쥬 버리지... <천변풍경:398 (박태원, 1938)>

25 『한불자전』에는 ‘보다, 보담, 보담’이 등재되어 있다. 조사에 ‘ㅁ’을 첨가하는 경우는 ‘부터, 부담’에서도 보인다. ‘보담, 보담’, ‘부담, 보담’ 등의 사례는 다른 자료에서도 19세기 후반부터 확인된다.

26 원문에서는 ‘그전에도’로 썼다가 ‘에도’를 지우고 ‘보담’으로 수정하였다.

### 3.3.2. 종결어미

이 자료는 맥락에 따라 일관되게 청자높임법이 적용되며 관련 종결어미가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증인의 선서나(22가, 가) 신부의 진술에서는(22나, 다) 합쇼체가 쓰이며 시복재판 관련 사실을 기록할 때는 해라체가 쓰였다(22라, 라').

(22) 가. 전에 청하던 증인 장 노샤가 드러오매 (...) 허원하여 왓 내가[장 노샤] 내 압희 잇는 거룩하신 텃쥬 성격에 손을 디혀 (...) 텃쥬와 맞이 거룩하신 성격이 나를 이러트시 도아주소셔 아멘 <1:1a-1b>

가'. 진실흔 말이올소이다 증인 (장 노샤) <1:3a>

나. 이 우 기록한 모든 소정과 일에 죄인이 셔스 소임으로 참여와 (...) 이 우 기록한 연월일시와 곳이니다 이러하외다 셔스 金保祿 (로베르 신부 서명) <1:3a>

다. 밁세하신 후에 쥬교피셔 일기 스찰하는 권을 맞기시는 시 문적을 죄인에게 치명일기 칙에 첨부하라 분부하시니 죄인이 명령대로 하 이다 <5:92b>

라. 날이 저물매 스찰함을 곳치고 (...) 당신이 증인을 리일 미시에 이 곳으로 오기를 분부하신 후에 (...) 증인과 곳치 슈결 두시니라 <1:3a>

라'. 밁세하신 후에 박 신부 | 죄인에게 이 다음 회초에 할 일과 회초에 월일시와 곳을 (...) 덩하시기를 말씀하시고 또 쥬교와 두 위 신부들이 슈결 두시니라 <5:94a-94b>

그러나 청자높임법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자료에서 증인의 진술은 시복판사의 질문에 답한 것이므로 시복판사인 신부와 증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쇼체 종결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대부분은 (23가)와 같이 증인의 대답이 합쇼체 어미로 종결되지만, (23나)처럼 해라체

와 합쇼체가 섞여 쓰이는 경우도 보인다.

(23) 가. 德十一도목되로 무른즉 답왈 (...) 그새 형님이 죄인드려 말하기를 만일 신부 | 군난을 당하시면 나는 조원이라도 헝갯시니 나를 길게 볼 생각을 말아라 헝더이다 <1:20a-20b>

다. 德八도목되로 무른즉 답왈 (...) 치명홀 원의 상히 모음에 잇는 줄을 알니로다 ... 분명이 드럿습내다 <2:89b-91a>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종결어미의 사례를 청자높임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3.3.2.1. 합쇼체

합쇼체 어미는 평서, 의문, 명령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증인이 시복판사인 신부에게 직접 진술한 내용이나 서기인 로베르 신부가 문서를 마무리하면서 서약하는 부분은 주로 합쇼체 어미로 서술되어 있고 증인의 진술이 인용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합쇼체 어미가 보인다. 몇 사례만 들면 다음과 같다.

(24) [평서] 소정은 조금 압내다 <1:32a>, 증인이 답왈 압내다 <1:1a>, “턴쥬 를 섬기랴고 아니 갓습내다” <1:53b>, 이 공변된 문서 꾸미기를 이 우 기록한 년월일시와 곳이니다 <1:3a>, 근절이 원흐음이다 <3:27a>, 고 슈교와 분묘 겻치 되옵테다 <4:51b>, 죄인이 명령대로 헝늑이다 <5:92b>, 가세는 어렵소외다 <5:22a>, 친히 지내던 교우 만소이다 <4:22a>, 진실한 말이올소이다 <1:3a>, 다른 죄목

27 증언 내용 중 증인이 인용문 형식으로 진술한 내용의 사례들은 따옴표로 처리하여 그 외의 사례들과 구분하기로 한다.

으로 당흔 일은 아니올세다 <5:22a>

[의문] “웬 일이온잇가” <1:74a>, “엇지 샴학이라 흐느닛가” <5:56b>

[명령] 나를 이러투시 도아주소셔 <1:1b>, “나를 구하야 주소셔” <1:91a>, “날 드려잡쇼셔” <3:47a>

### 3.3.2.2. 하오체

하오체 어미는 증인의 진술이 인용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에 보인다. 예가 많지 않지만 의문, 명령, 청유에 걸쳐 나타난다.

(25) [의문] “나는 엇더케 살나 호오” <3:30a>, “웨 그렇게 밧비 가오” <5:15a>, “보면 모로오” <5:73b>, “어디서 온 손이오” <5:73b>, “수리산 대회장의 안히가 칙을 못 본다 말이오” <5:76a>, “웨 내여 두시오” <5:49b>, “어머니를 뉘가 나하쇼” <2:90a>, “날 곱흔 죄인이 엇지 투겟소” <1:4b>, “신발 삭슨 무얼노 주겟소” <2:90b>

[명령] “설위 마오” <2:39b>

[청유] “그저 갑세다” <1:4b>

### 3.3.2.3. 하계체

하계체 어미로는 의문형 어미 ‘-은가’와 ‘-나’가 확인되며<sup>28</sup> 두 어미 모두 비내포절과 내포절에서 확인된다.

28 하계체 의문형 어미 ‘-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유희재(2023),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는가’/-은가, -나’의 통시적 변화」, 『대동문화연구』 1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160-165 참조. 이 논문에서는 『남원고사』(1864)의 비내포절에 쓰인 ‘-나’의 사례를 가장 이른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내포절까지 확대한다면 ‘-나’는 19세기 전반에도 확인된다. (딤편교의 병은 아직 소복이 못 되었나 보니 답답하다 <추사가-32, 1831>)

(26) [비내포절] “웬 너인인가” <1:52b>, “엇지<sup>ㅎ</sup>야 죽엇는가” <3:39b>, “성교회 물건을 엇지 즈네를 주겠나” <5:50b>, “무슴 쓸 디 있나” <5:69a>

[내포절] 아마 막달네나를 보고셔 난 말이온가 보외다 <2:61b>, “비가 이러케 오나 보다” <2:52a>, 지금 업서젧나 보외다 <2:77b>

### 3.3.2.4. 해라체

해라체 어미는 증언이 인용 형식으로 기록된 부분에서 주로 나타난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라체 어미가 확인된다. 몇 사례만 들면 다음과 같다.

(27) [평서] “비가 이러<sup>ㅏ</sup>투시 온다” <3:2b>, 신부<sup>ㅓ</sup>딛<sup>ㅓ</sup>지<sup>ㅓ</sup> 드러<sup>ㅓ</sup>니<sup>ㅓ</sup>라 <1:16b>, “내가 너를 살<sup>ㅓ</sup>너<sup>ㅓ</sup>주<sup>ㅓ</sup>리<sup>ㅓ</sup>라” <5:18a>, “네가 잇<sup>ㅓ</sup>서야 되<sup>ㅓ</sup>겟<sup>ㅓ</sup>다” <4:52a>, 가히 알<sup>ㅓ</sup>너<sup>ㅓ</sup>라 <4:3b>, “이제라도 비<sup>ㅓ</sup>반<sup>ㅓ</sup>호<sup>ㅓ</sup>고 말<sup>ㅓ</sup>마 ㅎ<sup>ㅓ</sup>면” <5:47a>, “비<sup>ㅓ</sup>교<sup>ㅓ</sup>흔 죄<sup>ㅓ</sup>로 죽<sup>ㅓ</sup>어<sup>ㅓ</sup>지<sup>ㅓ</sup>라” <1:14a>

[의문] “웬 말<sup>ㅓ</sup>이<sup>ㅓ</sup>냐” <3:18b>, “엇지 잇<sup>ㅓ</sup>겟<sup>ㅓ</sup>느<sup>ㅓ</sup>냐” <4:20a>, “엇지<sup>ㅎ</sup>야 식<sup>ㅓ</sup>집을 아니 갖<sup>ㅓ</sup>느<sup>ㅓ</sup>냐” <1:53b>

[명령] “뒤<sup>ㅓ</sup>흘 살<sup>ㅓ</sup>아<sup>ㅓ</sup>오<sup>ㅓ</sup>라” <4:66a>, “죽<sup>ㅓ</sup>여 달<sup>ㅓ</sup>나” <1:14a>, “놀<sup>ㅓ</sup>나<sup>ㅓ</sup>지 말<sup>ㅓ</sup>나” <3:70a>, “비<sup>ㅓ</sup>교<sup>ㅓ</sup>호<sup>ㅓ</sup>지 말<sup>ㅓ</sup>아<sup>ㅓ</sup>라” <5:47b>

[청유] “우리 둘<sup>ㅓ</sup>히 긋<sup>ㅓ</sup>치 치<sup>ㅓ</sup>명<sup>ㅓ</sup>호<sup>ㅓ</sup>야 가<sup>ㅓ</sup>자” <1:91a>, “얼<sup>ㅓ</sup>골<sup>ㅓ</sup>을 보<sup>ㅓ</sup>즈” <2:60b>, “쥬<sup>ㅓ</sup>씩 긋<sup>ㅓ</sup>구<sup>ㅓ</sup>호<sup>ㅓ</sup>자” <4:17a>

해라체 어미 중 평서형 어미 ‘-노라’는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인다. 이 어미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1인칭 주어 표지 ‘-오-’, 평서형 종결 어미 ‘-다’의 결합체이지만, 근대국어 시기에 변화를 겪으면서 기원 형태에 포함되어 있던 형태의 문법적 특성이 약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가 가진 특성상 현재 사태의 동사와만 결합하고 1인칭 주

어 표지 ‘-오-’의 특성상 1인칭 주어의 서술어에만 결합하는 것이 ‘-노라’의 기원 형태의 문법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선어말어미 ‘-엇-’, ‘-갯-’이 발달 과정에서 ‘-엇노-’, ‘-갯노-’의 결합을 보이게 됨에 따라 ‘-엇노라, -갯노라’도 나타난다. 이러한 ‘-노라’의 변화 과정을 고려하면 (28)의 예들은 자연스럽다.

(28) 가. “쥬 | 우리 부르시기만 브라노라” <1:55a>, “나는 사는 것 모로노라” <3:30a>

나. “잡으러 왔노라” <5:73b-74a>, “비교는 못 흐갯노라” <3:50a>

다만 다음의 (29)는 ‘-노라’가 기원 형태의 문법적 특성을 잃어가는 과정 혹은 1인칭 주어 표지 선어말어미 ‘-오-’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상으로 볼 수 있다. (29가)는 1인칭 주어가 아닌데도 ‘-오-’가 결합한 ‘-노라, -로라’가 쓰였으며<sup>29</sup> (29나)는 형용사 서술어에 ‘-노라’가 결합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문법 형태의 소멸 혹은 그로 인한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29) 가. “네 외조모가 나헛노라” <2:90a>, “더 형벌 밧는 이는 내 안히로라” <5:44a>

나. “너무 원통흐노라” <1:82a>

29 이 자료에는 1인칭 주어의 서술어에 결합한 ‘-로라’의 예도 보인다. (“더귀 잡히어 온 사림의 쥬인이로라” (2:56a))

30 ‘-노라’의 변화 과정은 연결어미 ‘-노라고’의 발달 과정과도 연계된다. 안주호(2007), 「연결어미 {-노라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학회, pp. 107-108 참조. 이 논문에서는 ‘-노라고’의 초기 사례로 19세기 전반기의 『추사가 인간』에서 1인칭 주어의 서술어와 결합한 연결어미 ‘-노라’의 예와 『한중록』에서 3인칭 주어의 서술어와 결합한 연결어미 ‘-노라’의 예를 들었다.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는 3인칭 서술어와 결합한 ‘-노라고’의 예가 확인된다. (마리아 | 담비대를 물고 분흔 머슴을 츄노라고 이룰 쓴죽 (3:45b))

### 3.4. 어휘의 측면

#### 3.4.1. ‘신부’, ‘탁덕’, ‘신스’

‘신부’(神父), ‘탁덕’(鐸德), ‘신스’(神師)는 가톨릭 사제, 즉 신부를 가리킨다. 이들 어휘는 『한불자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sup>31</sup> 『성경직해』, 『기해일기』 등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기록에는 ‘신부’만 확인된다.<sup>32</sup>

이 자료에서는 ‘신부’가 쓰인 예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김대건 신부는 주로 ‘탁덕’이라고 하였고 드물게 ‘신부’라고 한 예가 보이며, 다른 신부들은 주로 ‘신부’라고 하였고 드물게 ‘탁덕’ 혹은 ‘신스’라고 한 예가 확인된다.

(30) 가. 가히 공경홀 一 범 뇨렌신 주교 노 베드루 탁덕 三 정 야고  
 버 탁덕 삼위 주교 신부는 범국 사롭인 줄을 아오나 (...) 노 신부  
 몬져 묘션으로 나오시고 그 후로 정 신부와 범 주교까지 나오샤  
 <3:94b>

나. 七十五 김 안더리아 탁덕은 본디 충청도 니포 사롭이온디 (...) 친히  
 보고 온 김 신부 오촌 요왕의게 드렸습고 <5:84a>

다. 범 주교의 성스 훈 번 호고 노 신부의 두 번을 슈원 양간 공소에서 보  
 았시니 신스네는 묘션말을 허나 아직 날니 통치 못호신고로 <3:94b>

31 『한불자전』에는 가톨릭 사제를 가리키는 어휘로 ‘탁덕, 신부, 신스’ 외에 ‘스탁’도 등재되어 있다. 다음 내용 참조.

신부 神父. Père spirituel; prêtre. <한불:419> [성부(聖父); 사제.]

탁덕 鐸德. (Cloche, vertu). Vertu de la cloche. || Qui excite à la vertu; prêtre. <한불:506> [(종[鐘], 미덕). 종의 미덕. || 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사제.]

신스 神師. Prêtre; directeur spirituel. <한불:420> [사제; 지도 신부.]

스탁 司鐸. Prêtre, le Père. <한불:391> [사제, 성부(聖父).]

32 예를 들면 『순조실록』 순조 1년(1801) 2월 25일 기사 참조. (‘신부’ 등의 말은 명호를 만든 것인데 신과 같이 양모하는 자를 ‘신부’라고 일컬으니 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다. [神父等說, 倣作名號, 仰之如神者, 謂之神父, 可代神.]

### 3.4.2. ‘군난’, ‘소군난’

‘군난’(窘難)은 천주고 박해를 가리킨다. 『한불자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sup>33</sup> 『주년침례광익』, 『성경직해』, 『치명일기』, 『기해일기』 등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 자료에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혹은 집안 단위로 이루어진 사적인 박해를 뜻하는 ‘소군난’(私窘難)도 보이는데 이는 『한불자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sup>34</sup> 이 자료에 보이는 ‘소군난’은 현재 참조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예로 보인다.

- (31) 가. 기해 군난에 돌히 다 잡히여 <1:9b>, 병인년 군난 통에 치명혔섯습  
내다 <2:45b>  
나. 소군난을 당햏야 <1:82b>, 을미년 봄에 소군난이 나서 <3:66b>, 집  
에 소군난을 당햏야 <4:7b>

### 3.4.3. ‘성두’

‘성두’(聖櫃)는 성유물(聖遺物) 혹은 성유물 함(函)을 가리킨다. 한자 ‘櫃’의 음은 ‘독’이지만 『한불자전』에는 ‘櫃’의 음을 ‘두’와 ‘독’으로 제시하였다. 이 사전에서 ‘櫃’를 포함한 어휘는 모두 셋인데, ‘聖櫃’는 ‘성두’로, ‘櫃’과 ‘합櫃’은 각각 ‘독’과 ‘합독’의 대응 한자로 제시되었다.<sup>35</sup> 『불한사전』이나 『법한사전』에서도 ‘성두’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 당시에 프랑스 신부들은

33 『한불자전』의 다음 내용 참조. (군난 窘難 Persécution. <한불:206> [박해].)

34 페롱(Féron) 신부의 『불한사전』(Dictionnaire Français Coréen, 1869)에는 ‘군란’만 등재되어 있고(Persécution 軍亂 <불한:228>), 르 장드르(Le Gendre) 신부의 『법한사전』(法韓字典, Vocabulaire Français-Coréen, 1912)에는 표제어 ‘군란’에서 ‘소군란’도 설명하였다. (Persécution 軍亂 - locale ou particulière 소군란 <법한:1065>)

35 『한불자전』의 다음 내용 참조.

성두 聖櫃. Reliques, saintes reliques. <한불:404> [성유물. 성스러운 유물.]

독 櫃. Les boîtes des tablettes superstitieuses. <한불:485> [위패를 두는 상자]

합독 合櫃. Boîte ou piédestal où l'on peut mettre deux tablettes des ancêtres. <한불:79> [조상의 위패 두 개를 놓을 수 있는 상자나 받침]

‘聖櫃’를 ‘성두’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sup>36</sup> 다른 자료에서 ‘櫃’을 ‘두’로 읽은 경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당시 조선과 중국의 가톨릭교회 용어 간에 연계 가능성이 있다는 점,<sup>37</sup> 이 한자의 중국음이 [dú]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두’는 중국 한자음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서도 다음과 같이 ‘성두’의 예를 확인할 수 있다.

(32) 병인년 전에 큰고모 | 기히년 동정녀 치명자의 피를 숨의 못친 거슬  
엇어 성두와 꺾치 몸에 피시는 것만 보앗시나 <2:96a-96b>

흥미로운 것은 가톨릭교회에서 1929년 발간한 『경향잡지』 2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聖櫃’를 ‘성독’으로 읽고 있다는 점이다. 르 장드르 신부의 『법한사전』이 집필된 1912년까지도 ‘성두’로 읽었던 어휘를 20년이 채 안 되어 ‘성독’으로 읽은 셈인데, 이는 ‘櫃’의 중국 한자음 ‘두’에서 한국 한자음 ‘독’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성궤, 성독(聖櫃, 聖櫃 다베르나실눔, 삭그라리움)은 돌노나 혹은 나무로 궤  
처럼 만든라 제디 상 중앙에 두고 그 안헤 성테를 피셔 두는 궤니라 지

36 『불한사전』과 『법한사전』의 다음 내용 참조. 『법한사전』의 ‘합두’는 『한불사전』의 ‘합독’(合櫃)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면 『법한사전』은 ‘櫃’을 ‘두’로 읽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였던 듯하다.

(가) Reliquaire 성두합. <불한:260>, Reliques 성두. 성희. <불한:260>

(나) Reliquaire 성두. 성두합. 성희갑. 합두. <법한:1196>, Relique 성두. 성희. 성골. <법한:1196>

37 조현범(2011), 「선교와 번역: 한불사전과 19세기 조선의 종교 용어들」, 『교회사연구』 36, 한국교회사연구소, p. 185 참조. 이 논문에서 주목한 사전은 페르니(Perny) 신부가 1869년 파리에서 출판한 『프랑스어-라틴어-중국어 대역사전』(*Dictionnaire Français - Latin - Chinois de la langue mandarine parlée*)이다. 다만 ‘성두’[聖櫃]와 관련해서 이 사전은 한국어-프랑스어 대역사전인 『한불사전』, 『불한사전』, 『법한사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인다. 페르니 신부의 사전에서 ‘성유물’과 ‘성유물 합’은 ‘Reliques 聖髑 Chén toũ.’와 ‘Reliquaire 聖髑盒子 Chén toũ hò tsè.’(p. 374)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까지 이 성계를 감실(龕室)이라 불너왔스나 감실은 외인들이 그 신주를 류치하여 두는 스당, 벽장, 신주독인고로 덕합치 못하다 하여 청국에서는 발서브터 감실이라 말을 아니 쓰고 성계 혹 성독이라 부르니 조선에서도 이 명수를 밧고아도 가흔 줄노 녀이노라 <경향잡지 22호:470, 1929. 10. 31.><sup>38</sup>

#### 3.4.4. ‘불림, 불님’

‘불림’은 고발, 밀고를 뜻한다. 어중 ‘르르’을 ‘르니’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한 이 자료에서는 ‘불님’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불림’은 고발하다는 뜻인 ‘불-’의 피동사 ‘불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다른 자료에서는 이러한 뜻으로 쓰인 예를 찾기는 어렵다. 『한불사전』에는 ‘불님’과 ‘불-’이 등재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되는 피동사 ‘불니-’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sup>39</sup>

(34) 가. 기히년 군난에 죄인의 스촌 식아자비의 불림으로 스월에 포교의게 잡히엿시니 <1:4b>

나. 이왕 잡힌 교우의 불님으로 잡히스 <5:13a>

#### 3.4.5. ‘쇠붓’, ‘깃붓’

‘쇠붓’은 서양식 펜을, ‘깃붓’은 붓을 가리킨다. ‘쇠붓’과 ‘깃붓’은 『한불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sup>40</sup> 『불한사전』에는 ‘깃붓’만, 『법한사전』에는 ‘깃

38 여기서 예로 든 ‘감실’은 『주년침례평의』의 다음 사례 참조. (비록 외교 왕이나 이 성가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 감실 밧기 내기를 허락지 아닌지라 <주년침례평의 2:12b>)

39 『한불사전』의 다음 내용 참조.

불님 口招. Dénonciation. <한불:345> [밀고, 고발]

불다 招辭. Dénoncer; déclarer. <한불:346> [고발하다. 공표하다]

40 『한불사전』의 다음 내용 참조.

쇠붓 鐵筆. Plume de fer. <한불:426> [쇠로 만든 깃털, 즉 펜]

깃붓 羽筆. Plume d'oie pour écrire. <한불:175> [글씨를 쓰기 위한 거위 깃털, 즉 붓]

붓’, ‘쇠붓, 털필’이 등재되어 있다.<sup>41</sup> ‘깃붓’은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쇠붓’은 계일의 『한영자전』(1897)에서도 확인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대부분 ‘털필’(鐵筆)로 나타난다.

(35) 신부 디답이 내가 쓴 거시 쇠붓과 깃부시 달나 그러헌 거시니 만일 쇠붓 잇시면 그러케 쓰겟다 ㅎ시매 <5:69b>

### 3.4.6. 지명의 몇 사례

이 자료에는 지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중 몇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자료에서 프랑스는 ‘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우 드물게 France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부랑시아’라고 한 예도 보인다. ‘부랑시아’는 『주년첨례광익』에서도 확인되지만, 『한불자전』에는 ‘불란서’(佛蘭西)만, 계일의 『한영자전』에는 ‘법국’(法國), ‘불란국’(佛蘭國), ‘불란서’(佛蘭西) 등이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에 ‘부랑시아’는 매우 드물게 쓰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36) 범 주교는 부랑시아 낭반으로 도선에 전교후실 제 수삼 촛를 공소에서 띄웁고 <5:42a>

특이한 지명 표기로는 앞의 3.2.에서 경구개비음 ‘ㄴ’의 탈락을 논의하면서 살펴보았던 ‘공덕이’(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흑석이’(서울시 마포구 현석

붓 筆. Pinceau, plume, tout de ce qui sert à écrire. <한불:348> [붓, 깃털 등 글씨를 쓰기 위한 모든 것.]

필 筆. Pinceau. <한불:361> [붓.]

41 『불한사전』과 『법한사전』의 다음 내용 참조.

(가) plumage pour écrire. 깃붓 <불한:233>

(나) plume d'oe. 깃붓 <법한:1089>, plume métallique. 쇠붓, 털필. <법한:1089>

동), ‘왕십이’(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자료에서는 당시에 쓰이던 다양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널리 쓰이지 않는 서울 지역의 지명을 몇 예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 (37) 감은돌 <2:12b> / 흑석이 <1:55b> (마포구 현석동), 관우물골 <1:20a> (중구 서소문동 혹은 종로구 명륜동), 광쥬 엔굽이 <5:2a> (강남구 논현동 일대), 구리기 <5:34a> (중구 을지로2가 일대), 느리골 <2:6a> (종로구 효제동), 돌우물골 <4:50b> / 도로목골 <1:16b> / 돌우못골 <4:52b> (중구 소공동 일대), 두다리목 <5:43a> (종로구 종로4가 일대), 둔지미 <3:81a> / 둔짐이 <4:8a>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룡골 <5:24a> (종로구 수송동), 리문골 <5:12a> / 이못골 <4:33a> (용산구 도동), 무쇠막 <3:13b> (마포구 신수동), 문밭 잔인바회 <2:43a> (중구 봉래동), 문뼉부리 <4:73a> (용산구 문배동 일대), 미나리골 <5:28a>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 미쥬무골 <3:59a> (중구 봉래동 2가 일대), 병거지골 <5:49a> (종로구 종로3가 일대), 빈터골 <5:36b> (중구 북창동), 살니못골 <4:26a> / 살이무골 <4:15a> (중구 산림동과 입정동 일대), 서울 련못골 <3:35a> (종로구 연지동), 서강 독갑이골 <1:69a> (마포구 신수동 일대), 서강 토정이 <4:3b> (마포구 용강동 일대), 시흥 방아곳 <5:2a>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쌍룽정이 <5:57b> / 쌍룽덩이 <4:46b> (마포구 염리동 일대), 쪽우물골 <4:61a> (중구 남대문로 5가 일대), 우딤 잣골 <4:52b> (종로구 청운동), 학드리골 <3:65a>, 학다리골 <3:69a> (중구 서소문동)

#### 4. 결론

본고는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의 서지학적 특징과 구성 및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자료에 나타난 19세기 후반의 언어 양상

을 표기, 음운, 문법, 어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자료는 기해박해(1839-1840)와 병오박해(1846)의 순교자에 대한 시복재판 기록이며 이들의 시성 절차를 위한 기초 자료로 로마 교황청에 전달되었다. 이 시복재판은 가톨릭 교회의 정해진 형식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1883년 3월 18일부터 1885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시복재판(회차2~회차86)에서는 뫼텔 신부가 위임판사를 맡았으며 1885년 9월 17일부터 1887년 4월 2일까지 진행된 시복재판(회차88~회차102)에서는 푸아넬 신부가 위임판사를 맡았다. 로베르 신부는 모든 시복재판에 대한 서기를 맡았다. 회차87(1885. 4. 26.)은 위임판사 교체 및 문서 인수인계, 회차103(1887. 4. 3.)은 시복재판 종결 및 문서 정리, 회차104(1899. 5. 19.)와 회차105(1901. 5. 19.)는 문서 확인 및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해박해와 병오박해의 순교자 82인에 대한 총 42인의 증언자의 진술은 회차2부터 회차86까지, 그리고 회차88부터 회차102까지, 총 100회에 걸쳐 기록되었다.

총 5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기록한 날짜와 기록한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19세기 후반의 필사본이며 약간의 언해투, 즉 문어체가 반영되기는 하였어도 전반적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묘사와 서술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언어 양상은 근대국어의 주요 언어 변화를 겪은 19세기 후반의 한국어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자료는 국어학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학계에서 이 자료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19세기 후반의 언어 양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기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자료는 대부분 한글로 표기되었으나 신부들의 서명과 선서에 라틴어 표기가 있으며 일부 내용에서 한자 표기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가톨릭 관련 자료에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특이한 외국 인명 표기 방식도 확인된다. 경음 표기는 ㅅ계 병서로 되어 있고 어말자음군으로 ‘ㄹ, ㄼ, ㄽ’의 사례가 확인되며 어중 ‘ㄹㄹ’ 연쇄는 ‘ㄹㄴ’ 표기가 우세하다. 음운의

측면에서는 ㄷ-구개음화와 두음법칙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ㄷ-구개음화는 고유어와 문법 형태에는 적용되지만 한자어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두음법칙을 보면, 어두음 ‘ㄹ’을 회피하여 ‘ㄴ’으로 바뀌는 경우는 외국어 인명에서도 확인되지만 한자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으며 /i, j/ 앞의 경구개비음 ‘ㄴ’이 탈락하는 예들은 드물게 보인다. 문법의 측면에서는 조사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는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여격조사, 비교격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언해투, 즉 문어체의 영향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관형격조사가 ‘에’로 표기된 사례, 여격조사 ‘한테’의 ‘ㅎ’이 탈락한 ‘안테’의 사례, 비교격조사 ‘보다’에서 형태가 변하고 ‘ㅁ’이 첨가된 ‘보담’의 사례들이 주목된다. 종결어미는 청자높임법에 따라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평서형어미 ‘-노라’가 문법적 특성의 변화로 인해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사례도 살펴보았다. 어휘의 측면에서는 ‘신부, 탁덕, 신스’, ‘군난, 스군난’, ‘성두’, ‘불림, 불님’, ‘쇠붓, 깃붓’의 사례를 비슷한 시기의 사전 및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이 자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명들의 몇 사례를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자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웹사이트. [https://maria.catholic.or.kr/sa\\_ho/saint.asp](https://maria.catholic.or.kr/sa_ho/saint.asp)  
 한국교회사연구소 편(2004),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시복재판기록』,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편(1983), 『103위 시복시성자료』,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논저

- 남풍현(1968), 「15세기 언해 문헌에 나타난 정음 표기의 중국계 차용 어사 고찰」, 『국어

- 국문학』 39·40, 국어국문학회, pp. 39-86.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2011-2012),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하상출판사.
- 안주호(2007),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화회, pp. 97-121.
- 유필재(2023),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는가/-은가, -나’의 통시적 변화」, 『대동문화연구』 1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pp. 155-176.
- 유필재(2006), 『서울방언의 음운론』, 도서출판 월인.
- 윤민구(2014), 「103위 순교자 시복시성 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교회사연구』 45, 한국교회사연구소, pp. 7-51.
- 이승녕(1968), 「‘공변되다’의 주석」, 『경향잡지』 4월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p. 21-25.
- 조남호(2024), 「〈‘공변되다’의 주석〉의 이해」, 『이승녕 현대국어학의 선구자: 회상, 학술활동, 논저의 이해』, 태학사, pp. 811-815.
- 조현범(2011), 「선교와 번역: 한불사전과 19세기 조선의 종교 용어들」, 『교회사연구』 36, 한국교회사연구소, pp. 161-276.
- 차기진(1997),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관계 자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 역주」, 『교회사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pp. 225-298.
- 하강진(2016), 「공제어 대역 한자어의 탄생과 『한불사전』의 가치」, 『코기토』 80,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 107-143.
- 한용운(2002), 「국어의 조사화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연주(2004), 「해제」, 『기해·병오 박해 순교자 증언록: 시복재판기록』(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pp. 5-11.
- 홍연주(2006), 「기해 교난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pp. 75-116.
- 홍윤표(2023), 『근대국어연구』(증보개정판), 태학사.

원고 접수일: 2025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25년 1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27일

## ABSTRACT

A Linguistic Study on  
*Beatification Trial Records*  
*on the Martyrs of the Kihay*  
*and Pyengo Persecutions*

Lee, Ji-young\*

The *Beatification Trial Records on the Martyrs of the Kihay and Pyengo Persecutions* provide official documentation of the beatification process for martyrs from the Kihay (1839) and Pyengo (1846) persecutions. Submitted to the Holy See, these records were instrumental in the canonization process. The trials were conducted in Seoul from March 18, 1883, to January 27, 1885 (sessions 2-86) and from September 17, 1885, to April 2, 1887 (sessions 88-102), under the oversight of delegated judges Father Mutel and Father Poisnel, with Father Robert serving as the notary. Sessions 87, 103, 104, and 105 address the transition of judges and document management. Testimonies from 42 witnesses regarding 82 martyrs were recorded across 100 sessions. This collection of five volumes is mainly in Korean, but Latin is used in priests' signatures and oaths, and some passages include Chinese characters. The manuscript clearly details recording dates and scribes, incorporating some classical translation expressions, yet it is mainly characterized by natural, detailed narratives

---

www.kci.go.kr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of actual events. Analyzing its orthography, phonology, grammar, and vocabulary reveals significant developments in Modern Korean. This makes the manuscript a valuable resource for understanding late 19th-century linguistic changes, underscoring its importance in Korean linguistic studies.

**Keywords** *Beatification Trial Records on the Martyrs of the Kihay and Pyengo Persecutions*, Beatification Process, Manuscript, Late 19th-century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